2022학년도 수시모집 실기고사 기출문제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디자인학부 무대미술전공 디지털콘텐츠 전공	기초디자인		(문제은행 9번, 20번) 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디자인 하시오. **주의사항** 1.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 2.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 3.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 4.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 5.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
영화영상전공 (연기)	실기 고사 [지정 연기]	소재	우린 서로 헤어져야했지만, 내가 다시 애니를 만났다는 게 멋지지 않아요? 나는 그녀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됐고, 내가 그녀를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데요. 아, 지금 오래된 농담이 생각나는데, 한 친구 어느 날,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죠. “선생님, 제 형은 미친 것 같아요.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그럼 형을 데리고 와야 치료를 하죠?”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 대답이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전 달걀이 필요하거든요”라고... 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엉뚱한가를 알게 됐어요. 완전히 불합리하고 미쳤고 분별없지요. 그...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달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거라 생각해요.
		소재	김선생: 음 오늘 진찰실에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뭔지 아니? 너희 어머니가 뒷마당에서 나무 자르는 소리였어. 생각해 보렴. 어머닌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세끼 밥에, 빨래에, 다림질에, 그뿐이냐, 이젠 텃밭에 버팀목 만드느라 톱질까지 해야잖니. 너에게 말하기도 지친게야, 단념하고 직접하는게 맘편한거지. 그런데 넌 어머니가 지어 준 밥을 먹고, 어머니가 빨아 준 옷을 입고, 그리곤 뛰어나가 야구나 하지. 식모하고 다를게 뭐 있니?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옛다. 손수건
		소재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 이렇게 난 자신을 재교육 시켜야 한다니까요. 여기, 상명대 맞죠? 난 항상..긴장을 하고... 대학에서...난 대학에 얽힌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엘 입학했는데 1학년때 그만 쫓겨났어요...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에요. 난 그저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의 영혼을 좀 들여다 본 것 뿐인데... 내가 쫓겨나자 우리 아바지께서...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해져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안으로 잠궈 놓고는 바둑알을 마구 잡수셨어요. 나도 우울해져 가지고는, 상담을 받았는데, 자살이 하고 싶어졌죠. 아니, 사실은 자살은 못하고 대신 정신분석을 받게 된거죠.‘ 심리상담 하는 그 사람들 정말...당신이 자살하면.. 당신이 못들은 등록금이라도 대신 받아낼 겁니다.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영화영상전공 (연기)	실기 고사 [지정 연기]	소재	“하옇든 많은데-그걸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고 이 소녀 가장이 혼자 애를 쓰는 거야, 새벽에 신문배달, 낮에는 땅콩장수, 밤엔 메밀묵 사려! 자기는 먹고 싶은 것도 안먹고 잠도 못자고 일만해서 그 작고 귀여운 손이 낙엽처럼 갈라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눈은 퉁퉁 붓고,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거 뿐이야? 날 때부터 눈이 않보이는 소경, 우리는 눈이라도 있어 세상을 다 보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깝깝하겠어. 그리고 소아마비가 걸려 어려서부터 한 발짝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벙어리도 있어. 얼마든지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많어.”
연극전공 (연기)	실기 고사 [화술]	소재	자넨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놈이 내 말만 흉내 내고 있네. 머릿속이 어마어마한 생각이 꽉 들어차 있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입 밖에 내지 못하겠다는 시늉이야. 자네 무슨 곡절이 있나 보군. 내 부관이 내 아내 곁을 떠날 때 자넨 “저건 또 무슨 짓이야!“라고 말했지? 그 짓이 뭐길래 자네가 그토록 언짢아했던 거지? 구혼 시절에 그가 내 상담역을 했다는 말에 그게 정말이냐고 다그쳐 묻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 말이야. 머릿속에 어떤 어마어마하고도 무시무시한 꿍꿍이속이 있는 것 같군. 자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속 시원하게 자네 생각을 털어놓아 보게. 자네의 충성심과 정직함은 나도 잘 알고 있네. 자네 입이 무겁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 나는 자네가 입을 꼭 다물고 있을수록 마음이 불안하네. 거짓 충성을 맹세하는 놈에게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속임수지. 그러나 정직한 인간들은 속에서 불이 터져 못 견딜 때 그런 시늉을 해 보인단 말이야.
		소재	나는 8년 동안 그야말로 애달프게 기다렸었어. 왜냐하면... 정말, 나는 기적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침이 불행이 나에게 달려들었어. 그때 나는 이번에야말로 기적이 오는구나! 하고 마음으로 생각했었지. 편지가 저 밖에 놓여 있을 때... 나는 당신이 그 위협에 굴복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라고 말할 걸로 확신했지. 그래, 만일 정말로 그렇게되면... 난 당신이 세상사람 앞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고 잘못을 인정할 줄로 깊이 믿었었지.
		소재	본국에서 온 신문 조각을 보았소.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과 나의 아버지가 지은 범죄기사를 읽었소. (한숨) 그때 나의 심경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소. 며칠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오. 진실로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소. 어제 밤 출전 후 기지에 착륙시키기까지 20분 동안이나 기지를 순회하였소. 결국 착륙은 했지만 매우 괴로웠소. 우리들 출전하면 하루에도 서너 명은 돌아오지 않고 있소. 이럴 때에 아버지는 사업이랍시고--- 정말이지 이 심정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몇 분 후에 임무를 맡고 출전하게 되오. 아마도 나는 행방불명이라고 보고 될 거요 그러면 나를 기다리지 말시오.
		소재	이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제 아들이 ‘실험’이니 ‘이론’이니 ‘관측’이니 하는 것들을 위해서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아 왔으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선 상부 당국에 맞서 항거하셨고, 그들은 이미 선생님께 경고를 했었지요. 거물급 추기경님들께서 마치 병든 망아지를 달래듯 선생님을 타이르셨지요. 그것이 상당 기간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두 달 전부터인가, 성모 마리아의 수태절 직후부터 선생님께서 몰래 그놈의 ‘관측’을 시작하시다가 저한테 들키셨지요. 지붕 밑 방에서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 성 요셉에게 촛불을 하나 바쳤어요. 나와 단 둘이 있게 되면, 선생님은 제법 분별력 있는 기색을 보이면서 내게 말씀하시죠 “아시잖소,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라구요. 하지만 실험이 이틀만 이어지면 선생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이단자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제 영생을 잃는다면 그건 제 문제예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선 그 큼지막한 발로 따님의 행복을 짓밟을 권리까지는 갖고 계신 건 아니라고요!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연극전공 (연기)	실기 고사 [화술]	소재	세상을 속이려면 세상처럼 보여야 해. 환영을 표시하고 오시는 그 분에게 차분한 얼굴만 보여. 안색을 바꾼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이니까. 나머지 일은 모두 내게 맡기라고. 당신이 입고 있던 희망이 취했던가? 그 후로 잠자고 있었나? 그리고 이제 깨어나, 그렇게 마음껏 했던 일을 이렇게 창백하게 바라보고 있나? 지금부터 당신 사랑도 그런 줄 알겠어. 설마 욕망과 맞먹는 행위와 용기를 보여주기가 두려운 거야? 당신은 인생의 보화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기 원하지? 그런데 불쌍한 고양이처럼 “하고 싶어”에 “감히 못해”라고 대꾸하며, 자칭 비겁자로 살 셈이야?
		소재	당신은 이런 것이 인자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듣자니까 내 동생을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정말인가? 그 앤 내 동생이라서 내가 잘 알지! 걔는 욕심 없는 평범한 여자야. 비단 버선이나 신고 싶어하고 자동차나 타고 싶어하는 그런 애라구. 당신들의 세계를 걔가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볼수록 번뇌만 많아질 뿐이야. 당신네들의 자동차, 당신네들의 댄스. 당신네들의 사는 모습들로 인해 지난 이년동안 그 애의 눈은 이미 뒤집혀서 자기의 신분도 잊어버렸지. 그래서 지금은 걔가 집에 돌아와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눈에 차지를 않지. 흥,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복한 사람에게 시집가서 마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대갓집 아가씨들의 꿈이지!
사진영상 미디어전공	사진 촬영 실기	소재	[출제분야] 제한된 공간에서 주어진 주제로 30분 이내 사진촬영 후, 9컷 선정 usb에 담아 제출. 물체의 복잡함과 단순함을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하시오. (복잡함 4장+단순함 5장 또는 복잡함 5장+단순함 4장의 비율로 편집)
디지털만화 영상전공	만화 능력 테스트	소재	아래의 상황을 완성된 기승전결의 이야기로 구성하여 그리시오. 면접을 보러가는 취업준비생 현지(20대 초반)는 지하철에서 50대 샐러리맨의 발을 밟았지만, 오히려 남성이 잘못했다고 착각하여 큰 소리를 치고 내린다. 혼잡하다보니 한정거장 먼저 잘못 하차한 주인공. 어쩔 수 없이 뛰었지만, 면접 시간에 늦어 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간다. 면접관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고 어떤 질문을 할까?